



캡틴과 캡틴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삼성 주장의 승리. 12일 잠실 삼성-LG 전, 4회말 1사 2·3루에서 LG 정성훈의 내야 땅볼 때 홈으로 쇄도하던 3루 주자 박용택(오른쪽)이 삼성 포수 진갑용의 블로킹에 걸려 태그 아웃되고 있다.

“김광현 부진 변화구 남발 때문”

김성근감독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SK 에이스 김광현은 야구 인생의 ‘멘토’로 SK 김성근(사진) 감독을 꼽으면서 “내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했다. 그만큼 김 감독의 평가와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다. 김광현이 개막 후 두 번의 등판에서 부진했던 이유 역시 그 누구보다 김 감독이 잘 알고 있을 터. 김 감독은 12일 문학 한화전에 앞서 “다른 것 없다. 구위 자체가 문제였다”고 단호하게 평가했다.

김광현은 10일 문학 삼성전에 선발 등판했다가 5안타 5볼넷 3실점한 후 4회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5일 잠실 LG전(6.2이닝 4안타 4볼넷 4실점 3자책)보다 더 안 좋은 성적.

김 감독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변화구 남발’이다. “스플리터를 너무 많이 던졌다. 광현이는 그 공을 그렇게 많이 던져야 하는 투수가 아니다”라면서 “자연스럽게 지구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 타자들에게 다 읽힌 것은 물론 벤치에 앉은 나조차 ‘또 변화구야? 또 변화구야?’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김광현의 부진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대표 삼총사인 류현진(한화)과 윤석민(KIA)이 모두 부진하니 까 자기도 의리를 지키려고 함께 가는 건가”라고 농담하기도 했고, “계속 부진하면 분명히 손을 봐야겠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해서 일어서기를 가장 바라는 듯 했다. “포수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본인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믿음 보였다.

문학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류중일 감독 “이번엔 나만한민!”

(박한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네. 허허허.” 삼성 류중일(사진) 감독은 올시즌 처음 사령탑에 오른 초보감독이지만 시즌 개막 후 유행 어부터 히트시키며 화끈한 신고식을 했다. 바로 ‘나만한민’이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외국인타자 라이언 가코의 타격폼을 본 전 문가들이 대부분 의문부호를 달았지만 류 감독은 “나는 믿을거야. 가코 믿을거야”라고 신뢰를 보였다. 이를 줄여 ‘나만한민’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나만한민’은 그 독특한 조어법으로 야구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까지 유행어로 번져가고 있다. 류 감독도 무심코 한 자신의 말이 뜻하지 않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겸연쩍어 하면서도 싫지는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12일 LG전을 앞둔 잠실구장 덕아웃. 류 감독은 “오늘은 박한이를 선발로 내보낼 것이다”면서 “배영성이 잘 하고 있지만 박한이도 믿어야한다. 스프링캠프부터 2번타자로 쓸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박한이를 믿을 거야”라고 말했다. 주변 기자들의 표정을 본 류 감독은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아챈 듯 먼저 나섰다.

그는 “나만한민? 그건 좀 이상하네. 우리팀에 박 씨들이 많잖아. 나만한민? 이것도 이상하네. 나만한민? 그게 좀 낫겠네. 그 래 오늘은 ‘나만한민’이야”라고 말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잠실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추신수 무안타...LAA 최현은 3타수 1안타

클리블랜드 추신수가 12일(한국시간) 애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애인절스와 원정경기에서 3번 우익수로 선발 출장했으나 3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쳐 연속안타 행진을 3경기에서 마감했다. 시즌 타율은 0.184로 떨어졌다. 반면 애인절스의 한국계 포수 최현은 내야안타를 쳐 3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3회에는 추신수의 2루 도루를 잡아내는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경기에서는 클리블랜드가 4-0으로 이겨 8연승을 이어갔다.

권혁, KIA 2군경기 등판...2이닝 2실점

삼성 권혁이 12일 KIA와의 2군경기에서 선발등판해 2이닝 동안 2안타 2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류중일 감독은 “2군에서 구속이 146km까지 나오고 볼넷도 좋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천천히 부를 생각이지만 이틀간 LG전 결과에 따라 이르면 14일에 1군에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박노민·오선진, 1군 엔트리에 등록

한화 포수 박노민과 내야수 오선진이 12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대신 김강과 전현태가 2군으로 내려갔다. 한대와 감독은 “박노민이 2군에서 잘 쳤다더라”면서 곧바로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시켰다. SK는 투수 엄정욱을 1군으로 올리고 고효준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

숨은 기록 찾기

(13일)

- 넥센 알드리지 3연속경기후루=역대 용병최다연속경기후루는 스티브(삼성·1999년) 6G연속
- 넥센 허준 통산3호 홈런=2008년 10월4일 대전 한화전 이후 920일 만에 홈런
- LG 심수창 12연패=2009년 6월26일 문학 SK전 이후
- LG 심수창 삼성 전 8연패=2007년 9월9일 잠실 경기 이후
- 삼성 안지민 2009년 5월7일 한화전 이후 706일 만에 첫 선발승
- 두산 김동주 31연속경기출루=2010년 8월17일 대구 삼성전 이후

KIA 0.323의 폭발...세남자 있었다

(팀타율)

김선빈·나지완 스트라이드 변화 방향이 불꽃 ‘이범호 효과’ 경쟁 후끈...중심 타선 시너지도

2009년 팀타율 0.267(8위), 2010년 팀타율 0.260(7위), 2011년 4월 12일 경기 전까지 팀 타율 0.323(전체 1위). 놀라운 변화다. KIA는 지난 2년간 타격이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러나 2011시즌 개막과 함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7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KIA의 팀 타율은 0.323으로 2위 SK보다 정확히 3푼이 높다. 최하위 한화와는 0.121이나 차이나다. 막강한 팀타율에 힘입어 KIA는 7경기에서 52점을 올렸다. 경기당 7.4점에 이르는 고득점이다. 타율과 득점력 뿐 아니라 타점(48), 도루(11), 장타율(0.473), 출루율(0.414) 등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선빈, 나지완의 폭발

KIA의 공격력 변화에 숨겨진 첫 번째 비결은 스트라이드변화에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나지완과 김선빈이 있다.

나지완은 올시즌을 앞두고 스트라이드 폭을 줄이고 배트 무게를 늘렸다. 새 타격 폼은 정확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나지완은 11일까지 0.429(14타수 6안타)를 기록했다. 12일 광주 넥센전에서는 1회말 무사 1루에서 김성태의 142km 몸쪽 높은 직구를 그대로 밀어쳐 우월 2점 홈런까지 날렸다.

김선빈도 스트라이드를 간결하게 바꾸고 빠른 배트 스피드와 특유의 손목 힘을 살리는데 주력하며 타율 1위(5할 26타수 13안타), 타점 2위(10)를 달리고 있다. KIA는 아직 김선빈이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타자들이 확률 높은 정확한 타격에 중심을 둔 것이 높은 팀타율의 비결이다. 특히 새롭게 가세한 이범호와 김주영이 모두 3할 이상 타율을 기록하며 전력상승에 큰 역할을 해냈다.

●이범호 효과-치열한 내부경쟁 촉독한 훈련

KIA 공격력의 변화에는 ‘이범호 효과’의 영향이 크다. 이범호가 KIA 유니폼을 입으며 연속적으로 치열한 포지션 경쟁이 일어났고 타자들이 매 경기 집중하며 정확도 높은 타격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범호~최희섭~김상현~나지완에 김주영까지 중심타선이 완성되며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범호는 “볼넷이 별로 없을 정도로 투수들이 정면 승부를 한다. 뒤에 좋은 타자들이 있어 나가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며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IA는 타격 보강을 위해 지난 스프링캠프에서 혹독한 훈련을 소화했다. 김선빈은 “아직 초반이지만 많은 훈련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범현 감독은 “꾸준히 타격 메커니즘을 바꾸는데 공을 들여왔다. 그 효과에 이범호가 가세하면서 시즌 초반 좋은 타격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단장회의, 신생구단 선수지원 논의 연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각 구단 단장들의 모임인 실행위원회를 열어 프로야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당초 논의할 예정이던 신생구단 선수지원방안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음 기회로 미뤘다.

실행위는 이날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야구관람 바우처 사업을 펼치고,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프로야구관람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프로야구관람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본인이 입장료의 10%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을 국가가 50%, 프로야구단이 40%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전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선정한 5000가구로, 15일(롯데는 4월 말)부터 전 구장에서 예매 또는 현장 구매를 통해 스카يباص스와 테이블지정석을 제외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9개 구단은 올해 IVI와 함께 백신의 개발과 보급, 저개발국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유엔개발계획(UNDP) 산하의 IVI는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다. 9개 구단은 IVI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페넨트레이스 입장수입의 1만분의 1을 기부하는 한편 올해 올스타전을 ‘IVI의 날’로 지정하고, 각 구장 전광판을 통해 공익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모금함을 운영해 후원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실행위에는 엔씨소프트의 이상구 신임 단장을 포함한 9개 구단 단장 전원이 참석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이승엽 日 개막전 무안타

소프트뱅크전 3연타석 삼진...김태균도 침묵

오릭스 이승엽과 지바 롯데 김태균이 일본 프로야구 개막 첫 경기에서 나란히 안타를 치지 못했다.

이승엽은 12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소프트뱅크와의 홈경기에서 6번 1루수로 선발 출장했으나 볼넷 2개를 얻었을 뿐 3연타석 삼진을 당했다. 이승엽은 2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끌었으나 퍼시픽리그 다승왕 요다 쓰요시를 만나 5회와 7회 연속 삼진을 당했고, 연장 10회에도 역시 좌완 모리 후쿠와 대결해 삼진으로 물러났다. 2-2로 맞선 연장 12회말 1사 3루에서 들어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라이언 보겔송 상대로 고의4구에 가까운 볼넷을 얻었다. 2-2 무승부.

김태균 역시 홈구장인 지바의 QVC 마린필드에서 열린 라쿠텐과의 개막전에 4번 1루수로 출장했으나 4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라쿠텐 에이스 이와쿠마 히사시와 상대한 김태균은 1회 첫 타석 삼진을 당했고, 이후 3루 땅볼~1루수 뜬공~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지바 롯데는 4-6으로 패했다.

김영준 기자 galzy@donga.com 트위터 @matsr21

아직 예열이 더 필요했나? 오릭스 이승엽이 12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소프트뱅크와의 개막전에서 3연타석 삼진으로 부진했다. 2회 볼넷으로 나간 뒤, 2사 2루에서 발타디스의 내야땅볼로 이닝이 마무리되자 아쉬운 표정을 짓는 이승엽.

오사카 | 연합뉴스



이승엽 더보기